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기억에 남는 명법문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막내라 한 없이 어리게만 느껴져서 과연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글도 제대로 깨치지 못했고, 또래들보다 키도 작다. 큰아이처럼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도, 또래들보다 키도 작다. 큰아이처럼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도...

이번에 책으로 엮여졌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성수 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절에 와서 복 지으려고 부처님께 실컷 절하고 나가다가 신에 흠이 묻었다고 남에게 욕하면 절한 복을 다 쏟아버리게 된다."



“절하면 뭐해, 욕 한 마디에 다 쏟아져”

지시 건넌 큰스님들의 법문이다. 큰스님들의 살아왔던 행적이나 느껴왔던 감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법문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게 한다. 처음부터 글로 쓰인 법문이 아니라 말로 된 법문을 옮긴 것이라 직접 법문을 듣는 것처럼 실감이 난다. 구어체의 무박함이 더 정답과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평소 마음가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나도 모르게 '아차!' 싶었다. "마음을 닦고 욕심내지 말고 여유를 찾자"라니,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현실은 늘 정신없고 분주하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움츠러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곁에 두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 주제가 따라 읽어오 좋은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다.

이 책에 실린 20편의 법문은 각 성·혜인·정련·통광·혜거·정락·근일·정화·현웅·각현·보광·지안·철오·현봉·지운·정념·대봉·성일·지행 등 스무편의 스님이 2009~2010년 초에 대중법회에서 했던 법문을 <법보신문>과 월간 <불광>이 지면에 옮겼으며,

기억에 남는 명법문 | 성수 스님의 19인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 2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일상 속 깨달음 명쾌하게

지안 스님 설명 따라가면 어느새 '금강경' 이 머리에 쏙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은 다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어떤 자세로 수행에 임하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느냐?'이다. 질문들은 항상 우리 삶을 따라다니는 화두다.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아 실천하면 비로소 부처가 된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2009년 조계종 교육원은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번역해 <조계종 표준 금강번역본(이하 금강경)>을 출간했다. 최근 교육원은 번역본 금강경에서 뜻다른 설명을 모아 대중의 가슴에 와 닿게 하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를 출간했다.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표준 금강경>을 한 단락씩 다시 읽어가며 새롭게 해석을 덧붙인 이 책은 <금강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게 한다.

지안 스님은 "금강경은 양이 많지 않은 경전으로, 사람들이 그나마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라며 "이런 경전 내용을 심도 있게 읽기 위해서는 해설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간혹 기존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 난무하는 경우가 있다"며 "책은 기존의 <금강경> 해석의 표준으로 불릴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금강경>은 "금강과 같이 견고해 번뇌를 끊고 무명의 어리석음을 부수는 지혜"라는 뜻으로, 서막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스님은 "한문의 속뜻과, 원문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며 "선수행의 기본서인 <금강경>을 천천히 27단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했다"고 밝혔다.

부처님은 일체 상을 떠나 삶의 본질에 있는 순수 그 자체로 돌아가라고 했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쌓여 진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는 그 기준을 알려 줄 것이다. 불자들의 필독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아두어야 할 교양서다.

스님은 "현대 지식인들의 지식공간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공간이 좁다"며 "앞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쉽고 널리 읽힐 수 있는 불교서적들이 많이 보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 지안 강설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8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위법망구 길 간 구도자  
일상에서 발견한 인어공주

인간세상의 왕자를 보고 인간이 되기 위해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았다. 마녀는 "꼬리를 발로 바꾼 후에 디딜 때 마다 바늘을 밟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야 할 것이며, 그런 노력에도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마녀는 "인어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의 목소리를 값으로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청호 스님은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최초로 읽은 구도자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동화 속에 인어공주가 말로 도를 얻기 위해 몸을 버린다는 '위법망구(爲法亡軀)'의 길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이다.

<인어공주의 길을 가다>는 어렵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느끼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산문 집이다.

한 번은 스님이 길을 지나다 '하얀 금'이라는 소금 가게 이름을 보며 생각했다. 하얀 금이라고 쓸 때 한자는 황소(素)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본디'라는 뜻도 있다. 스님은 '본디 금'을 생각하며 스님의 뜻을 타고 흐르는 소금도 생각했다.

스님은 "이념이나 사상이 확고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금을 절여둔 음식처럼 부딪스럽다"고 말한다. 진정한 현자는 오히려 평범해 법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한다. 정신을 썩지 않게 하던 소금기는 빠지고 본디 금만 남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스님의 산문집은 가르치는 글이 아닌, 무신경하게 지나쳤을 법한 일상의 소재들로 불경보다 쉽게 깨달음을 준다.

인어공주의 길을 가다 | 청호 지음 | 천년의시작 펴냄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의승군 피땀 서린 남한산성 바로알기

전보삼 교수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펴냄

사시사철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 받고 있는 남한산성.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 곳이 얼마나 많은 유적과 문화재가 가득한 공간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남한산성을 쌓은 것이 바로 의승군(義僧軍)임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드물다. 저자는 전국 8도에서 올라온 의승군들이 도총섭인 벽암 각성선사를 중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운 기록들을 하나씩 밝혀냈다.

고대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며, 복합적인 새로운 역사의 장을 보여주는 남한산성은 불교의 역사와 민족의 상징성 모두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남한산성은 백제시대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거느린 한반도의 중요 요충지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외세와 치열하게 항전한 역사적 산증인이다.

남한산성에는 개원사 국정사 남당사 동림사 망월사 옥정사 장경사 천주사 한홍사 등 전부 9개의 사찰이 있어 '남한구사(南漢九寺)'라 불렸다. 남한산성 내 사찰들은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다'는 사상이 강조된 사찰들이었다. 이 사찰들은 국가의 위기에 변방에서 침병 역할을 담당했으며 조선 후기 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자는 전국의 승려들이 종교를 뛰어넘어, 나라사랑을 목적

으로 팔도사찰을 건립하고 남한산성을 축성해 외세에 맞선 결과가 어땠는지 상세히 말하고 있다.

책은 단순히 팔도사찰만의 현장을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면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남한산성 구성구석을 답사하고 그 현장에서 느낀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불교문화총서'라 정의한다. 이어 "책을 통해 앞으로 불교문화들이 더욱 보존되고 그 가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그래야만 남한산성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책은 팔도 사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남한산성에 현존하는 사찰, 옛 절터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 전보삼 지음 | 불교진흥원 펴냄 | 2만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정진	휴
2	명품 마음 아름다운 절	금강	불광출판사
3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법정	문학의 숲
4	행복도 내 마음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사는 즐거움	보경	돌
6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누구 없는가	법진	김영사
8	열두 달 절집 법상	대안	웅진북하우스
9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10	내 마음은 금부처	대행	한마음선원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성전 스님이 전하는 희망과 위로

올해도 봄은 찾아 왔다. 빗소리가 더 이상 차갑게 들리지 않는 걸 보니, 봄은 봄인가 보다. 두툼하게 껴있던 옷들도 제법 가벼워지고, 입에서 하얀 입김도 더 이상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

따뜻하게 굳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듯, 성전 스님은 자신의 푸른 글로 봄을 써내려 갔다. 겨울 내내 커켜이 묵혀왔던 감성들을 어루만지는 책은, 지금 내게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다. 부모님 혹은 연인이나 친구 등 그동안 내 옆을 지켜준 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만들어 냈는지, 순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2009년 황석영, 신경숙과 함께 교보문고가 선정한 10대 스타작가인 스님의 글은 봄에 피는 꽃을 보듯, 아름답다.

"책에 실린 글 한 편 한 편은 제가 매일 이른 새벽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올리며 쓴 희망과 사랑, 위로의 글입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는 정성처럼 글 한편을 쓰면서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빌었습니다."

성전 스님이 정갈한 마음으로 쓴 108편의 시들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와도 같은 깊은 영혼의 울림을 선사한다. 책은 음악을 듣거나, 지하철 혹은 버스 안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상처받고 세상에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성전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800원

이은정 기자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books. Text includes '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and '실증설' (Actualization). Website: www.zenparadise.com. Phone: 02-3494-2460.

Advertisement for '학인모집' (Scholarship Recruitment) for Zen Paradise. Text includes '귀의삼보 하옵고... 소승 인사를 올립니다.' and '다음 아나뵃고, 소승은 옥천 뱀땀대에 졸업반으로 지금까지 공부해온 영산 작법' (중요 무형 문화재 제 50호 유네스코 등재). Contact: TEL 054)775-9803, PHON 010-4783-0077. Address: 경주시 감포읍 감포 4리 251번지 원혜사.

Advertisement for Bulgama Gold. Text includes '황금빛 찹질로 건강100세!' and '우리 몸을 따뜻하게 다스리는 황금빛 찹질' 불가마 골드의 온열요법은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찹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Website: www.bulgama.com. Phone: 011-9865-9401/070-7523-9401.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Text includes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d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Website: www.zenparadise.com. Phone: 02)456-8831.